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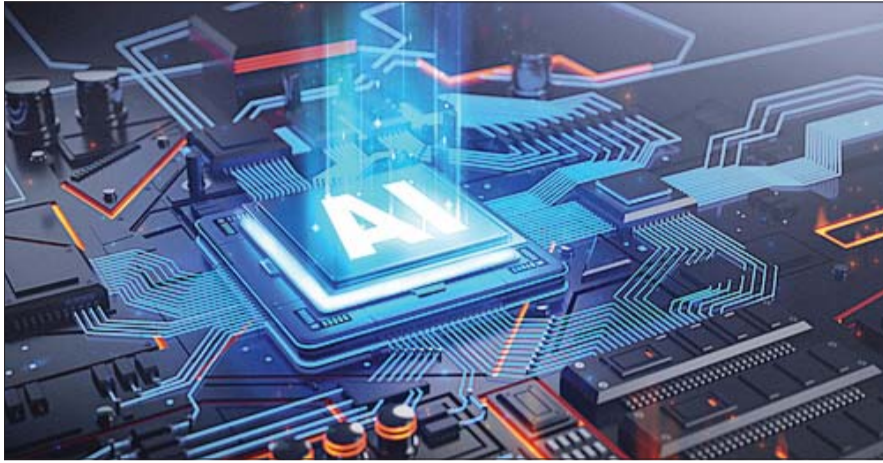
가상인간 애널리스트가 정보 전달... 증권업계 'AI 전성시대'

NH투자증권, 개인 맞춤형 지수 개발
삼성증권, 버추얼 애널리스트 선배
대신증권, AI 대화형 상담 챗봇서비스

증권사들이 올해 고객 중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9일 AI를 활용해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생애 주기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지수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NH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의 베타버전을 선보였다. NH다이렉트인덱싱은 다양한 시장지수(index)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직접 수



증권사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다. /유투이미지

정해 나만의 지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이다.

NH투자증권은 베타버전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 매대 기능이 포함된 정식 버전을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이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서비스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AI 기술

을 적용한 가상인간 애널리스트를 선보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성증권이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 등을 복제해 만든 가상인간 '버추얼애널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AI휴먼전문기업 딥브레인과 협력,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개발했다. 또한 삼성증권이 서울대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과 공동 개발해 특허받

은 음성합성모델도 함께 활용해 버추얼 애널리스트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삼성증권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 '주식클럽'을 선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가상인간을 활용한 리서치 보고서 콘텐츠 '쇼미더리포트'를 출시했다. 쇼미더리포트는 기존의 읽거나 듣는 보고서 형태에서 벗어나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가상인간 '한지아'가 리서치 보고서를 3~4분 길이의 영상으로 짧게 요약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한지아는 한국투자증권이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신입사원의 얼굴을 학습해 탄생시킨 가상캐릭터로 향후 리서치 콘텐츠와 홍보, 상품설명, 사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인공지능(AI)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자산운용 역량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측의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에 AI 대화형 상담 챗봇서비스 '벤자민'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자민은 대화형 챗봇서비스로 질문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해 답변을 고도화해가는 인공지능상담 서비스이다.

증권사들은 향후 AI 기술 도입에 더욱 활발히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개발비용만 빼면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향후 AI 기술이 더 고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AI 서비스는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고객 편의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자들 수익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완판' 우량 회사채... A급 낙수효과 미지수

연초효과로 강한 매수세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

올들어 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단,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으로까지 자금조달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KT(AAA), 이마트(AA), 포스코(AA+), 연합자산관리(AA), LG유플러스(AA), CJENM(AA-), 롯데제과(AA), LG화학(AA+) 등이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대부분 회사채가 흥행에 성공해 발행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행량의 경우 지난해 1월 실적인 8조7709억원을 넘어설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LG유플러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2000억원 모집에 총 3조 26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발행량을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처음으로 미대각을 겪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집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진행된 포스코의 3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총 3조9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포스코 역시 발행량을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연초에 크레딧스프레드 축소나 나타

나는 '연초효과'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채안펀드 가동에 연초효과가 겹치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80bp(1bp=0.01%p)에서 지난 11일 기준 131bp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낮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신용채권 시장은 우량물을 중심으로 구간에서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을 지속했다"며 "연말 강세를 주도했던 초우량물 대비 상위등급 회사채 및 여전채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재개된 가운데 AAA~AA급 종목들의 수요예측이 진행됐고, 전 종목에서 매우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1월 국내 주요기업 회사채 발행계획)

기업	신용등급	목표금액	발행액
KT	AAA	1500억원	3000억원
이마트	AAA	2000억원	3900억원
포스코	AA+	3500억원	7000억원
연합자산관리	AA	700억원	1000억원
LGU+	AA	2000억원	4000억원
CJENM	AA-	1700억원	미정
롯데제과	AA	1500억원	미정
LG화학	AA+	4000억원	미정

/각사취합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회사채 시장 훈풍이 A급까지 퍼지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경기 둔화에 따른 A급 기업의 실적 저하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A급 건설사 신용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전셋값 추가하락 예상 '역전세난' 심화 우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단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퐁퐁 언 코인 시장에 국내 거래소들, NFT 등 활로 모색

NFT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12일 코인 시장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8618억 달러(약 1072조원)로 1년 전(2조26억 달러) 대비 56.97% 감소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70% 이상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 역시 크게 감소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일일 거래대금은 18억632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3% 가량 감소했다. 각 거래소별로는 ▲업비트 15억4300만달러(59%) ▲빗썸 2억5536만달러(-77%) ▲코인원 5822만달러(-70%) ▲코빗 458만달러(-26%) ▲고팍스 204만달러(65%) 등 대부분 일일 거래대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현재 매출 99% 가량이 매대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만큼 실적에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올해도 가상화폐 업황이 나아질 기

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거래소들이 'NFT'를 중심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NFT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조인트벤처) '레벨스'를 통해 아티스트 관련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수집형 플랫폼 '모먼트카'를 출시했으며, 지난달에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NFT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의 자회사 '업비트NFT'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희귀식물 NFT를 제작하면서 90%가 넘는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영석 기자 ysl@